

# ASSOCIATION NEWS

## 엠코, 신규 회원 가입

엠코(대표이사 김창희 부회장)가 3월 1일자로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2002년 설립된 종합 건설 업체 엠코는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로, 2007년 시공 능력 평가 31위를 기록했고, '엠코타운' 브랜드로 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엠코는 부천 삼산동을 비롯한 울산 신천동에 엠코타운을 분양했으며, 금년도에는 73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엠코의 신규 회원 가입으로 협회 회원사는 80개 사로 늘어났다.

협회는 주택법에 의해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 운영 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2월 19일,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봉희룡(한화건설 전무)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 홍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보고 사항으로 ▲ 1월 30일부터 지방 모든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해제 ▲ 1월 16일부터 후분양제를 신청하는 업체에는 택지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택지 개발 업무 처리 지침 개정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 기준을 전용 85㎡의 경우 1139만~1291만 원으로 제시한 발코니 확장 비용 심사 참고 기준 ▲비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분양 주택 전매 제한 폐지하는 '주택법', 기반 시설 부담금을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만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법',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 계획 및 구역 지정 수립·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국회에 제출된 주택·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보고했다. 또한 협회는 지방 부동산 경기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등 '주택 시장 정상적 작동을 위한 108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 투기지역 해제 ▲지방의 전매 제한 완화, 취·등록세 감면 확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등의 국회 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규제 개혁 장관 회의에 건의해 하자 보수 보증 예치금 산정 기준을 직접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업체별 하자 실적 등에 따라 예치금 적용 요율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 홍보위원들은 소비자 만족도 평가 제도와 관련해 우수 업체 선정 방법이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해줄 것과 건교부에서 마련한 공동 주택 발코니 확장 비용 심사 참고 기준과 관련해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협회 내 분양 가격 실무 분과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안을 마련해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 제18회 정기 총회 개최 안내

한국주택협회 제18회 정기 총회가 오는 3월 26일(수),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에서 개최된다. 회의 안건으로는 2007년 결산안과 2008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최근 주택 시장 현안에 대한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 일시 2008. 3. 26(수) AM 11:00
- 장소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
- 회의안건 2007년 결산안 및 2008년 예산안 승인 등